

주목! 이사람



윤장현 광주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오후 5시 권주교 광주대학교에서 개막하는 '2017 카톨릭페스티벌' 전시전에 참석한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31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출석, 답변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4일 오후 3시 학교시설지원단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학부모회 임원 연수'에 참석한다.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24일 오전 10시 도의회 '3차 본회의', 오후 5시 본청 상황실에서 '이러닝 세계화 교육협력국 교원초청 연수 개강식' 등에 참석한다.

광주 4차산업혁명 "준비미흡" vs "선도도시"

임택 시의원, "구체적 대응전략·실행방안 없다" 시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 행정력 집중"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4차 산업혁명을 놓고 충돌했다.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동구1)은 23일 제 25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간,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광주시의 준비와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내 지자체들의 발 빠른 사

례를 제시하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지난 2월 부산에 연고를 둔 50개 회원사가 참여한 '부산 IT융합포럼'을 정립해 IT 및 콘텐츠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1년 전부터 물·미래형자동

차·스마트에너지·의료·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10대 산업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대전시는 스마트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AI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가정 '인공지능산업 진흥원'을 설립했으며, 충남도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미래성장분부를 신설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기초자치단체인 서용성품구의 경우도 '4차 산업혁명센터'를

개설해 드론 체험교실, 3D프린팅 교육,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코딩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재양성을 선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른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전문가특강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 대응전략과 실행방안이 없다"며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국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창호 기획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이 광주공약 타이틀을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설정한 데는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제정립하는 동시에 20세기 산업화 단계에서 소외된 우리지역을 21세기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며 "광주 균형발전이전사업에 전폭적 국가지원을 이끌어 내 중전부지와 주변지역에 국책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실증지구인 스마트에너지시대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조기철 기자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제14차 이사회.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처가 23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산학융합센터에서 열린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제14차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의 거리극"

내달 2일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문화전당 일원
임수택 총감독 "건강한 사회 위한 생산적 축제 역할"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손을 잡고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을 개최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이 내달 2~4일 3일간 아시아문화전당·5·18민주광장·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시는 최근 총감독으로 임수택씨를 선임하고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의 거리극'을 슬로건으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수택 총감독은 2000년대 초 국내 최초로 거리극을 도입해 과천한마당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나라 거리에축제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은 슬로건에 걸맞게 거리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대표 거리극단을 초청, 20여개 작품을 선보인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스페인 대표 거리극단 작사(Xarxa Teatre)의 '마법의 밤'과 아르헨티나 극단 보알라의 '보알라 정거장' 등 6편이 금남로와 민주광장의 밤거리를 수놓을 예정이다. 국내 초청작으로는 서울과파의 '보이지 않는 도시', 음악당 달다의 '칼팔라소', 창작중심 단디의 '꽃과 여인'을 포함한 거리

극 10편이 광주시민들의 감동을 이끌어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함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개막 퍼레이드는 '축제를 위한 행진'을 주제로 놀이와 신명의 박강의, 스페인 작사 극단의 마누엘 빌라노바(Manuel V. Vilanova), 레안드레 에스카미야(Leandre Ll. Escamilla) 등 광주와 스페인의 대표 연출가 3인이 공동 연출한다. 임수택 총감독은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은 단순히 즐거운 잔치에 빠지는 축제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예술정신을 충실하게 구현,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생산적인 축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 광주시·전남도 의회 '시·도정 질문'

"산하기관장 9명 일괄사표는 행정행포" 조오섭 시의원, 비판...윤 시장 "충격요법 불가피"

올해 초 윤장현 광주시장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시 산하기관장 일괄사표 문제가 광주시의회에서 다시 재검토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북구2)은 23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올해 초 윤 시장이 인적쇄신을 이유로 산하기관장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은 이유와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다. 다만에 나선 윤 시장은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미리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며 "흐트러진 일부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일신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5·18총탄자국 옛 도청 현판 복원해야"

우승희 도의원 도정질문, "역사 가치 크다"

옛 전남도청 정문 현판을 원래 있던 자리에 부착해 원형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청 5층 기록관으로 옮겨졌다. 현판은 지난해 9월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당시에도 존재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기도 했다. 우 의원은 "옛 전남도청 본관은 5·18사적지이자 근대문화유산인데도 정부의 리모델링으로 상당부분 훼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문제를 언급한 만큼 광주·전남도·대행위 등은 즉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은 23일 열린 31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현 전남도청에 보관 중인 현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탄자국이 그대로 남아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현판 복원은 5·18 최후항쟁지인 전남도청(광주 동구 금남로) 현장을 원형 복원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 현판은 2005년 10월 도청이 광주에서 전남으로 옮길 당시 폐어져 현 도청 수장고에 보관됐다. 이후 관리번호 '행정박물관 2016-122' 공공기록물로 지정돼 지난해 10월에야

시, 구직청년 교통비 대상자 모집

광주형 청년수당 두 번째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내달 12일까지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은 미취업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광주형 청년 교통수당이다. 일경험 수당으로 지난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광주청년드림(Dream)사업'에 이은 두 번째 청년보장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청년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한다. /조기철 기자

건강보험 적용시 131만원 보조금(본인부담10%)

철저한 독일의 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다채널 방식 / 100%디지털 고막형◆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 변형구멍입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 신장성 나청이 큰 도움이 됩니다.
- ▶ 청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진타미빌 건너편 6층 (중명빌딩 603호)

HP 010-3634-0777

☎ 022-222-1510 022-573-5106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인

근조화환 3인

정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6511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급매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제일 오피스텔
- 20층중 17층, 29평
- 사무실전용, 전망최고
- 내부 인테리어 시설
- 시세 - 8500만원
- 급매 - 5500만원 (일시불 조건)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3605-5000